

◆2018년 제3회 회원세미나 녹취정리◆

강연 : 홍성욱 교수(서울대) “신학과 과학의 대화”

논찬1 : 김기석 목사(청파교회)

오늘 홍성욱 교수님의 발제를 매우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진솔하게 얘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올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근복 원장님이 오라고 하셔서 거절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늘 생각하기를 이런 것을 내가 수용하는 것은 주제넘는 것 같습니다.

비노바 바베의 글을 읽다보니까, 그가 자기의 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백과사전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백과사전처럼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 아닙니다. 백과사전은 어딘가에 그냥 꽂혀있는 거죠. 궁금한 사람이 와서 찾아보고 꽂아놓으면 조용히 거기 있고, 그래서 저도 의욕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뭐 하라마라 이야기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냥 꽂혀 있는게 나의 실존에 적합한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화학자 조셉 캠벨의 글을 읽다보니까, 인간과 동물을 구분해주는 세 가지를 이야기 합니다. 첫째는 구석기 시대의 인류가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타부(Taboo)나 토렘에 관한 것을 깊은 동굴 속에 와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외부의 대상을 인식의 창속으로 끌어 들여서 추상화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독특함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호모 파베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이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공부할 때는 마제석기니 타제석기니 했는데, 요즘은 뿔석기, 간석기로 말을 바꿨더군요. 도구를 만드는 것이 인간의 독특함입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에 비해서 인간은 신체적으로 훨씬 취약한 존재임에도 살아남기 위해서 신체의 ‘연장’으로서의 도구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인간이 인간되게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남겨진 주검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동물들이 훼손하지 않도록 돌무더기를 쌓는 것으로 그 주검을 귀하여 여겼다는데 있습니다. 무덤을 만들어주는 존재, 그것이 인간입니다. 캠벨이 하는 이야기는 인간의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그 세 가지와 관련됩니다.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예술 본능이고, 도구를 만드는 것은 과학이며, 죽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것은 철학과 종교입니다. 이처럼 예술, 과학, 철학과 종교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캠벨은 말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학의 길에 머물러 왔으니까 철학과 종교를 공부했고,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술에 대한 감식력도 높이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제일 부족한 부분은 과학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자리에 불러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종교와 과학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대두된 까닭은 과학적 무신론자들의 대두와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안티 기독교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저 기독교를 무작정 비판을 했다면 과학적 무신론자들은 상당히 정교한 이론을 가지고 기독교 비판의 근거들을 제공해주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팔려나가면서 기독교는 반지성주의적인 집단으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한국 개신교를 대해서 떠올려지는게 무엇이나고 물어보면, 대부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혐오-소수자들에 대한 배타성', '헌금강요'를 떠올립니다. 이것이 안티기독교를 키운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흥미롭게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클레어몬트 피쳐 칼리지의 사회학과 교수인 피쳐 주크만의 '종교 없는 삶'이란 책입니다. 주크만은 북유럽 3개 국가가 명시적인 종교인이 많지 않음에도 그 사회가 어떻게 안정화되었는가에 대한 책을 썼었는데, 그 책이 '종교 없는 삶'입니다. 원래 이 책의 본래 제목은 'Living the secular life'라고 해서 '세속적 삶을 사는 것'이라고 되어있는 것을 번역할 때 '종교 없는 삶'이라고 단순화시켜서 번역했습니다. 부제를 보면 'New answer to old questions' 옛 질문들에 대한 새로운 대답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안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워졌다.' 종교가 결국 무엇이나면 사람들을 강박관념 속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을 부자유하게 만든다는 것을 제목과 부제 속에 의도를 담아낸 것입니다. 그 책의 내용 속에서 그런 요소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이것은 너무 의도적인 제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무종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현상에 주목하면서 그것을 몇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필 주크만의 분석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인용하면서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를 기독교와 보수적인 정치권 사이에 노골적인 합작으로 봅니다. 소위 미국의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남부 기독교인들의 근본주의적인 종교와 트럼프로 상징되고 있는 보수적인 정치세력들이 결합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속상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가질까 말까 망설이며 경계선에 서있는 사람들이 '에이 이런 종교라면 떠나' 이런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원인으로 꼽고 있고 두 번째 원인은 가톨릭 사제들의 소아성애 스캔들이 불러일으킨 정신적 환멸과 그 반작용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흥미가 있는데, 이것은 여성임금 노동력의 현저한 증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전의 여성들은 노동현장에서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이 적었을 때는 종교단체에 출석하고 헌신하고 여성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여성들도 일을 하게 되고 노동력과 경제력이 생겨나게 되면서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하는 것이 사회학적 분석입니다. 네 번째는 미국문화에서 동성애를 더 많이 인정하게 된 현실과 관련된 것이빈다. 보편적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있는데, 교회로 상징된 종교는 거기에 대해서 배타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주크만이 하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터넷의 보급인데요. 인터넷을 접속함으로써 사람들은 종교전통에 대한 비판이나 노골적이 공격에 노출되는게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내 교회만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많이 접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용기를 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과 점점들이 생기게 되면서 과감하게 탈출하게 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말합니다. 필 주크만은 현상학적으로 종교현상을 분석하는데, 이것은 과학적 무신론자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논조입니다.

책을 읽다 느껴지는 목사로서의 불편한 점은, 종교라는 것이 현상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는 점입니다. 즉 역사 속에 있는 진실, 성서가 가지고 있는 혁명적 정신 같은 것이 여기에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유감스럽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과학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해주신 진화론과 창조론이 충돌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주어져고 있습니다. 소위 대형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그랜드 캐년, 창조과학탐사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랜드 캐년에 가보면 인류가 창조되었다는 게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유사과학이죠. 유사과학이 기독교 대중들을 상당히 매료시키고 있는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성경이 전하고 있는 이야기는 창조에 대한 사실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그 진정성에 있습니다. 그것이 성서의 관심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16세기가 되기 전까지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이나 아니냐는 무의미한 질문이었습니다. 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진실이 무엇이나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르네상스 이후에 과학이 발전되면서 성서를 과학적인 언어로 재해석할 필요가 재기되면서, 근본주의들은 자꾸만 성경의 이야기들을 사실의 언어인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서의 토대가 무너지는 것처럼, 즉 6일 동안의 창조 사건, 6천년의 젊은 지구론이 무너지면 자기들이 기대고 있는 신앙의 진정성 자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성욱 교수님의 글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가 우연에 노출되는 것이 당혹감을 느낍니다.

우리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지만 다소 보수적인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는 말들은 창조이야기의 첫머리에 등장합니다. 이것들을 인생의 경험으로 얘기한다면 삶의 긍정적 경험보다는 부정적 경험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입니다. 이러한 혼돈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정착하여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과 연관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며 혼돈 속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질서를 창조하고 빛을 창조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사람들은 그저 그러려니 하면서 듣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모세가 쓴 건데 갑자기 바벨론 포로기의 이야기가 나오면 당혹해합니다. 자기들이 기대고 있는 신앙의 토대가 문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처럼, 큰일이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 캘리포니아 네바다 지역의 접경인 레이크 타우포라는 곳에서 미국 서부지역에 있는 교역자들과 평신도들과 함께 3박 4일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 사람들의 질문을 받았습니. 동성애에 대한 이슈가 미국감리교에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회피하고 싶었던 질문을 받았습니.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성경에 보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젠더가 남성인데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하실 수 없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은 것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 언어와 과학적 언어는 문법구조가 다르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월터 부르그만의 ‘마침내 시인이 온다.’라는 책을 보면 사실 종교적 언어는 시적언어라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언어가 아니라 산문적인 언어도 아니고 시적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적 언어를 산문의 언어로 이해하려고 할 때 문법적 구조가 서로 다른데, 서로 다른 문법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이 틀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테리 이글턴은 ‘신은 공허하다’라는 책에서 도킨스나 히친스 같은 과학적 무신론자들이 범주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언어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과학과 신학의 차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선물로 보느냐 아니냐에 차이가 있다.’ 그러면서 제가 한 대목을 인용하면, ‘기독교 신앙에서 일차적인 것은 초월자인 하나님을 동의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둠과 고통과 혼란 속에서 허덕이며 막다른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에 대한 약속을 충실히 믿고 지키는 인간들이 보여주는 헌신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종교가 무엇인지를 이 유물론자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한 구절을 더 인용하면 ‘우리가 이성적 추론을 시작조차하기 전에, 세상이 우리 앞에 주어졌다는 원초적인 사실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닐까? 과학은 이유나 설명만을 추구하지 말고 이러한 주어짐에 배제되었을 그 모든 복잡성에 먼저 매료되어야하는게 아닐까?’ 내 삶이 여기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나의 선택과 관계없이 주어졌다는 사실의 매혹, 이런 것들을 소거시킨다면 그것은 과학의 폭력이 아닌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종교가 과학이 달라지는 지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경탄의 능력과 관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나단 섹스라는 영연방 최고의 랍비가 있는데, 그 분이 썼던 창세기에 관련된 책을 읽다보니까 그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동물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끌고 온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답합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동물의 이름을 붙여주기 위해서라고 답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름을 붙여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없습니다. 여기서 조나단 섹스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이 동물을 만들어 인간에게 끌고 온 이유는 함께 경탄하자고. 그러니까 소위 내 앞에 주어졌는 것들에 대해서 경탄할 줄 아는게 인간존재의 풍요로움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적 사고는 신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신은 이미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피조물과의 친교를 위해서 만드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혁파 전통에서는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러(Schiller)는 세계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이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려는 상대를 가지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 시적인 표현입니다. 어쨌든 광대한 우주, 극대의 세계, 극미의 세계 앞에 서서 경탄하는 것이 인간의 인간다움일텐데, 오히려 지금의 인간사회는 인간에게서 그러한 경탄의 능력을 빼앗아가고 그 영혼을 납작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질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압도함으로 인간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극대의 세계와 극미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과학은 기독교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면 신의 세계에 대한 경탄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건 아닐까? 그렇게 보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수님이 지적하셨듯이 오늘의 과학은 자본과 정치에 상당히 예측적인데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명박 정부가 4대강을 가지고 할 때, 환경문제 때문에 가까이 지내고 있는 서울대학교 김정욱 교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이 분들 정말 이렇게 확신해요?” 그러니 교수님이 저를 딱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세상을 모르시나요? 그분들은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원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석유회사가 돈을 대서 나온 연구결과는 다 그들에게 유리한 연구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자본에 종속되기 쉬운 것이 오늘의 과학이라고 본다면 과학이 자율성을 가질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울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과학만능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제 누가 말하기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표현하는 말을 포노 사피엔스라는 말로 덧대어 썼습니다. 휴대전화, 이것으로 못할 일이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과학에 무관심한척 하지만 사실은 과학이 제공하는 것을 다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문제는 우리같이 과학에 무지한 사람들은 기후변화의 문제, 폭력의 문제 등,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과학이 해냈듯이 지금의 문제도 다 과학이 해결할꺼야라는 생각에 있습니다. 과학신화 속에 나를 내던짐으로 오늘 내 삶을 책임적으로 살아가야하는 부분에 대한 윤리적·도덕적 책임들을 방기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도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 즉 우리는 과학적 사실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고 다만 ‘우리가 이렇게 발견한 것을 사실이라고 명명하기로 한다.’는 겸허한 태도가 종교와 과학이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목에서 우리 교수님이 과학자들과 종교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사회가 경험하는 기술적·사회적 해법을 찾아가야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옛날에 종교 간의 대화를 얘기할 때, 다양한 대화 층위가 있었다마는 예수가 구원자냐 아니냐 그 문제에 부딪히면 전쟁 밖에 날게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중심의 대화를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폴 리터라는 미국의 신학자가 제안한 ‘Kingdom centered dialogue’, 또는 Kingdom이란 말대신 ‘Soteria centered dialogue’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언어가 옳다 아니다를 따지면 이것은 영원한 평행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인류의 다양한 문제들에 관해서 종교는 어떤 방식으로 공헌할 수 있고, 과학은 어떤 방식으로 공헌할 수 있는지 겸허하게 서로 귀를 기울인다면 조금 더 풍요로운 지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논찬2 : 전철 교수(한신대)

사실의 과학, 가치의 종교. 두 언어의 대립의 양상을 넘어서서 현재 사회에 주어진 여러 과제들을 같이 공동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새로운 해법을 만들어 나가는 식의 종교와 과학의 담론은 한국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교와 과학의 대화라는 것은 창조론과 진화론의 문제, 우주론의 문제, 동성애에 대한 과학적·종교적인 관점의 차이로 이진투구하는 방신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발제와 이 주제의 핵심은 우리

세대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기술적 난점들을 종교와 과학, 심지어 종교와 과학 사이의 정치사회와 문화의 목소리들을 함께 담으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봅니다.

화이트헤드는 종교와 과학이 우리 문명을 구성하고 새롭게 추동하는 두 축으로서 설정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볼 때도 종교와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채널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경험하고 있는 양육문제, 주택문제,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문제, 이러한 것들을 보면 다양한 채널들과 목소리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화이트헤드는 과학과 종교가 큰 차원에서 문명을 구성하는 두 축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 신앙의 전통에서는 종교와 과학이 왜 중요하면 1940년에 장공 김재준 목사님이 당시의 축자영감설을 역사비판을 하면서 한국기독교에서 축출을 당했습니다. 70년 80년 어간의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 당시의 쟁점들을 다시 복기해보니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영적 리얼리즘의 한 축과, 물리적이고 역사적인 다른 축을 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방식으로 대화하며 교회의 미래를 향해 노력을 하자고 얘기했을 뿐인데 김재준 목사님은 퇴출을 당했습니다. 그 문제들을 보면서,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러한 영적인 실제론과 물리적 실제론의 대립각은 우리 안에 여전히 유효하고 교통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학과 종교의 세계관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홍성욱 교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조과학에 대조되는 새로운 종교과학의 문법은 무엇일까? 단순히 기독교의 우주론과 빅뱅을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창조과학에 대조되는 해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과학기술학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듯이, 과학과 종교가 공동으로 모색하는 새로운 문법이 창조과학에 대한 대안적인 문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의 사회와 문화, 과학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담론들이 우리 종교와 과학의 문법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본문에서 저는 짚막하게 종교와 과학에 관한 여러 쟁점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지난 2000년 초에 전개되었던 개인의 종말, 우주적 종말의 문제. 결국은 우주는 열죽음으로 식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시적인 죽음의 문제와 개인적인 영원한 생명의 문제에 대한 서구의 연구는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의 연구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타성의 문제입니다. 이타성의 문제는 21세기 초에 생물학, 자연과학, 성서적 전승과 함께 전개한 연구가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서구가 전개한 최신의 종교과학연구의 핵심과제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전개되는 방법들은 그렇게 명료해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홍성욱 교수님이 하시는 인공지능이나 포스트휴먼의 문제가 종교와 과학의 담론에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심지어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서구적인 종교와 과학의 추상적인 문법들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대안적 모색들이 포스트 휴먼, 인간에 대한 새로운 물음들에 대한 담론 속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한국적 종교와 과학의 기여가 저는 선생님의 작업을 통해서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는 기억에 대한 연구입니다. 기억은 단순히 인지과학, 인간의 메모리 용량과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통찰이 기억 안에 있다. 거룩한 기억, 뜨거운 기억, 차가운 기억에 대한 다각도의 논의들이 종교과학의 연구에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이런 문제가 아닌 종교와 과학의 만남에 대한 사회적 과제들과 쟁점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교회와 신학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발제물을 잘 읽고 잘 배웠습니다. 설명에서도 잠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교수님이 과학사 연구를 하셨으니까, 그 당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교육의 틀을 교회에서 거부했을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것을 단순히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틀이 헤브라이즘적 유산이 아니라 헬레니즘적인 틀로 담론으로 형성이 되니, 종교적 차원에서는 헬레니즘적 언어에 대한 헤브라이즘적인 브레이크로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사실의 언어로서의 과학, 가치의 언어로서의 종교도 이러한 듀얼리즘을 피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제 지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었습니다. 오늘 홍성욱 교수님의 말씀은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려는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 이 현실세계를 이해하는 두 카테고리로서 사실과 가치를 말씀하셨고 거기에 적절한 커넥션으로서 과학적 마인드와 종교적 마인드를 구분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실과 가치에 대한 21세기의 새로운 이해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것을 잘 구성하는 시점이 바로 종교와 과학의 언어가 잘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연결이 돼서 사실과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우리 현실은 종교와 과학, 문학을 다 떼놓고 따로 국밥처럼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의 중층성의 관점에서 종교, 과학, 사회, 법, 모든 이야기가 유사한 목소리로 협력을 해야하는데 현실적인 모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종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로서는 종교가 소수가 되어버린 시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종교적인 목소리를 국가에 던질 수 있을까 싶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종교와 사회라는 이원론적인 양상이 현대사회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종교는 새로운 미래의 대안적 사회를 기여할 수 있을까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의 신념, 과학, 종교가 만나는 장소가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느꼈던 병원에 대한 체험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생명을 유지해주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과학기술의 향연과 발전을 통해서 나와 나의 이웃에 대한 생명을 도모하는 곳이었습니다. 단순한 예를 들었지만 종교·과학·제도 등이 얽혀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새로운 해법들을 기독교가 어떻게 현실을 향해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질의응답

배영호 목사(경동교회) :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대화의 충분한 가능성을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다른 부분을 느낍니다. 종교와 과학의 대화에 있어서, 과학적 사실과 종교인들이 가지는

가치는 다르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부활의 문제, 그것은 과학적으로 전혀 설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교인들은 그것을 믿는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무너져버리면 종교인들의 신앙의 토대는 무너져버립니다. 이런 것들의 차이를 구별하면서 대화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과학과 종교가 대화를 한다하지만, 과학은 사실을 추구하고 종교는 의미를 추구하는데, 그 속에서 기독교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문제 중에 과학자들과 대화를 할 때, 과학자들은 과학 우월주의가 있고 종교인들은 종교 종속이 있습니다. 과학은 늘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가능합니다만 종교는 그렇지 못합니다. 주관적입니다. 과학, 종교의 종속도 염려가 되는데 신학자와 김기석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조주희 목사(성암교회) : 서로 질문을 나눠서 해주셨는데,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을 다 받은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홍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 질문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 다른 분들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성욱 교수(서울대) : 논평 너무 감동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김기석 목사님이 정말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특별히 많이 공감되었던 부분이 경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철학자들 중에서도 과학의 핵심은 경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학자 중에 하인츠 페르스토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2차 사이버네틱스를 열었던 그룹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의 책이 하나 번역되어 있는데 '진리는 거짓말쟁이의 발명품이다.' 라는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매우 재미있는 책입니다. 인터뷰를 해서 대담을 녹취해놓은 책입니다. 김기석 목사님이 경탄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인터뷰를 하다가 자연은 그 자체가 기적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페르스토가 말합니다. 삶도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하고요. 인터뷰하는 사람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못 알아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자리에서 저 구석에 있는 파리가 여기에 앉아있지 않았느냐?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나' 라고 페르스토는 말했습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이 그런 순간들이다. 놀라운 일이지 않느냐?' 이러한 그의 말은 종교적인 맥락의 대화는 아닙니다. 그는 모든 세상의 작동방식이 놀라움 따름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자연을 기계로 보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합니다. 데카르트식의 기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자연을 기계로 본다면 그것은 입출력이 다른 기계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데카르트의 기계는 입출력이 정해져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자연을 기계로 본다면 입력을 했을 때, 항상 출력이 달라지는 기계다라고 그러니까 놀랍지 않느냐라고 그는 말합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파리가 날라 와서 여기에 앉고, 어떻게 내 방까지 들어왔고, 이러한 모든 과정이 놀랍지 않느냐.' 이 자연을 보고 그 자연의 그 어떤 것도 반복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그의 관점입니다.

제가 항상 잘 쓰는 비유는 관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움직이는 물체는 항상 움직이고, 정지한 물체는 항상 정지해있다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은 계속 움직인다고 보는 것은 자연을 이상화시키고 추상화시키고 수학화시켜야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근대과학의 핵심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었고 그 일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지금의 근대과학은 $F=MA$ 와 같은 법칙이 자연에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이 심지어 그 법칙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맞다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뉴턴의 법칙은 자연을 상당히 이상화해서 얻어낸 공식, 대부분의 과학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지 자연에 있는 것들을, 진리를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과학자들이 과학을 이런 식으로 보면 종교에 대해서 훨씬 너그러워질 것 같습니다. 도킨스처럼 쓸데없이 전투적으로 될 필요가 없습니다. 도킨스는 실제 종교의 다양한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비판하고 싶은 지점을 잡아서 비판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특정 부분을 꼬집어내서 마치 종교가 다 그런 것처럼 얘기합니다.

아까 부활 같은 경우, 제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과학과 종교의 대화는 그것을 붙잡고 과학자들이 지적하는 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믿음이고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붙잡고 그것이 틀렸다고 하는 대화는 별로 도움이 안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저분들이 어떤 이유에서인가 소중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믿음이 남을 해치는 것은 아니라면 인정을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지, 부활에 대해서 굳이 시비를 거는 것은 바람직한 대화의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배워야하는 것은 바람직한 만남의 태도를 배워야한다고 봅니다. 대학이라는 공간에 이런 것이 더 시도가 되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경탄의 부분, 시적언어의 부분, 사실 과학이 어떤 부분에서 사실 눈치 채지 못하지만 비슷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싶습니다.

아까 전철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간단히 제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주의는 본래 물체운동의 부분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체운동은 훨씬 형이상학적인 부분들. 물체운동을 논했던 많은 부분들은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할 수 있는 것들로 가다보니까 얻어진 결과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속도가 일정한 물체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속도가 증가하는 물체는 정해진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거리를 가는가 등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Why에서 How쪽으로, 많은 중세의 과학자들은 이때가 근대과학의 맹아가 있었다라고 보기도 한다.

사실 가치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데, '과학에 가치가 없다. 종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전혀 아니고요. 과학이 바람직한 가치를 자연에서 발견하고 얻는데 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봅니다. 근대과학은 그런 것을 안하겠다고 발전한 것이 근대과학입니다. 그러면서 발전한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에 대한 반성들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과학이 우리 삶에 의미가 있을 정도까지 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결국 과학이 가치와 무관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문제와 무관심채로 발전해온 과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부분과 결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는 삶의 의미, 삶의 가치들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종교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는 답변 중 하나는 제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목사님이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과학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봅니다. 현대과학의 문제들, 현대과학의 핵심과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합니다. 그 현대과학이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선한 방향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나눠야하는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기석 목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깜짝 놀랐는데, 4대강 때문에 김경옥 교수님의 이야기에 대한 부분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의 부분, 미국에서 트럼프 정치인들이 일부 과학자들이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후변화는 아주 큰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근거로 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럴 듯합니다. 잘못하다가는 그런 이야기를 믿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같이 잘 고민을 해야 합니다. GMO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과학의 이름으로 안전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100명의 과학자들이 안전하다고 사인하고 네이처에 실었다라는 기사도 났습니다. 과학계에서는 GMO가 안전한 것이구나 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복잡한 배경이 있습니다. 과학이 자본과 정치에 대해서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무엇이 과학적 사실인가에 대한 부분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공부하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과학자들을 만나고 과학과 종교의 접점들을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주희 목사(성암교회) : 질문에 대한 부분을 또 다른 분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석 목사(청파교회) :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TV에서 봤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지질학자가 호주의 서부에 갔는데, 너무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왜냐면 바위 모양과 형태를 보면 42억년전의 바위다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과학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놀랍잖아요. 1억년이 마주보고 인사하네요.' 이것은 시적언어입니다. 그 다음에는 밤이 되어서 별빛이 총총 빛나니까 별을 이야기 하면서 '저 별이 지구에서 가까운 별인데, 저 별빛이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8만년이 넘어왔습니다.' 이것이 시입니다. 과학이기도 하지만. 시적언어와 과학자의 언어가 함께 하는 모습입니다. 또 붉은 바위 지형으로 들어가면서 이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저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까?' 이 바위가 붉은 까닭이 무엇이나면 바위 속에 있는 철 성분이 산소와 만나서 산화철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피가 붉은 것이 저 철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위가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 바위 속에 있습니다. 화염의 세계죠. 종교와 과학이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해놓은 아름다운 세계, 흥미의 세계를 보면 그 패턴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학의 발견이 종교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놀라움의 세계 앞에 세운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영호 목사(경동교회) : 김기석 목사님과 같은 시적 마음이 우리한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주희 목사(성암교회) : 교수님께서 써주신 글 중에 문단의 세 번째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논쟁은 충분히 친해진 뒤에 친구들끼리 사용하는 언어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오늘 우리가 그 발을 한번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홍성욱 교수님, 김기석 목사님, 전철 교수님,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크리스찬아카데미와 교회활력화네트워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